

공무국외연수보고서

- 연수국가 : 일본
- 연수기간 : 2017. 2. 13 ~ 2. 17



의성군의회

목 차

I. 연수개요	03
1. 연수 목적	03
2. 연수 국가	03
3. 연수 기간	03
4. 연수 대상	03
II. 연수 일정	05
III. 연수국 현황	06
IV. 주요연수내용	08
1. 모쿠렌 보육원	08
2. 도쿄 지진방재센터	10
3. 도쿄 도의회	12
4. 에노시마 관광 지구	14
5. 신사이바시, 도톰보리 거리	15
6. 산넨자카, 니넨자카	16
7. 도요타 시티	17
V. 정책 시사점 및 총평	18

I. 연수 개요

1. 연수 목적

- 재난 선진국 일본의 재난 관리 시스템 현황 및 시민들의 방재대처능력을 기르기 위한 방재교육 체험
- 제3의 지자체 수입세원으로 문화관광 수입 확대를 위한 지역개발방안 등을 보다 명확히 할 수 있는 시책 제시
- 선진 보육정책 조사 및 보육환경·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지역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방안 모색
- 해외연수를 통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동기부여 및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공유

2. 연수 국가 : 일본

3. 연수 기간 : 2017. 2. 13 ~ 2. 17 (4박 5일)

4. 연수 대상 : 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 1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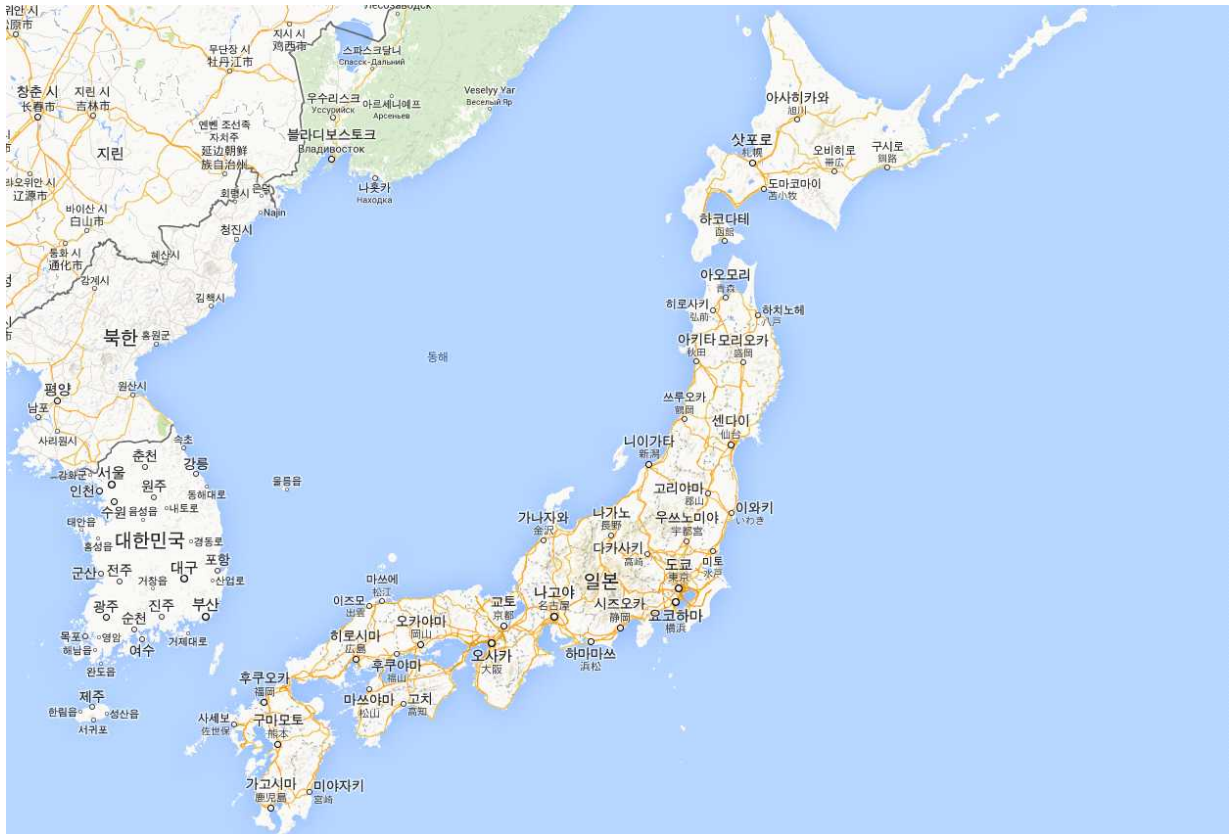
연번	직 위	성 명	비고
1	의 장	최유철	
2	부의장	김영수	
3	총무위원회 위원장	서용환	
4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진수	
5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순락	

6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명국	
7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배광우	
8	의원	남동화	
9	의원	김동준	
10	의원	우종우	
11	의원	정도진	
12	사무과장	우남국	
13	전문위원	강재구	
14	의사계장	권정기	
15	지방통신운영주사	김태홍	
16	지방행정주사보	한 산	

II. 연수 일정

일자	도시명	세 부 일 정
제1일	대구 - 간사이 - 고베 - 오사카	▶ 대구 국제공항 출발 ▶ 간사이 국제공항 도착 ▶ 시찰 : 모자이크거리, 하버랜드 ▶ 시찰 : 오사카성 ▶ 시찰 :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제2일	오사카 - 교토 - 아라시야마 - 오사카	▶ 공식방문 : 모쿠렌 보육원 ▶ 시찰 : 청수사 ▶ 시찰 : 산넨자카, 니넨자카 ▶ 시찰 : 도월교, 대나무숲, 노노미야신사
제3일	오사카 - 도쿄 - 에노시마 - 도쿄	▶ 공식방문 : 도쿄 지진방재센터 ▶ 시찰 : 에노시마 전망대, 식물원
제4일	도쿄 - 오다이바	▶ 공식방문 : 도쿄 도의회 ▶ 시찰 : 도쿄타워(도시 랜드마크 시설) ▶ 시찰 : 오다이바(대형 인공섬 시설) ▶ 시찰 : 비너스포트(멀티쇼핑타운 시설) ▶ 시찰 : 도요타시티(도요타 체험전시관)
제5일	오다이바 - 도쿄 - 나리타 - 대구	▶ 시찰 : 도쿄도청 전망대 ▶ 시찰 : 신주쿠 시내 일대 ▶ 나리타 국제공항 출발 ▶ 대구 국제공항 도착

Ⅲ. 연수국 현황



1. 일반사항

- 위치 : 동북아시아
- 면적 : 약 37만km²(한반도의 약 1.7배)
- 인구 : 1억 2,713만명(2015년)
- 수도 : 동경(Tokyo)
- 행정구역 : 1都 1道 2府 43縣(총47개)
- 종교 : 神道(Shintoism), 불교, 기독교

2. 정치현황

- 국가형태 : 입헌군주제
- 정부형태 : 내각책임제
- 국가원수 : 아키히토 천황
- 총리대신 : 아베 신조 자민당 대표

- 의회구성 : 양원제
- 최근 정국동향
 - 2014.12.24 제3차 아베 내각 출범
 - 2015.10.07 제3차 아베 개조내각 출범
 - 2016.08.03 제3차 아베 2차 개조내각 출범

3. 경제현황

- 화폐단위 : 엔(円・yen)
- GDP : 4조 1,233억불(IMF잠정치)
 - 1인당 GDP : 32,481불(IMF잠정치)
- 외환보유액 : 1조 2,332억불(한국은행)
- 경제성장률 : 0.5%(한국은행)
- 실업률 : 3.4%(한국은행)
- 산업구조(2013년 기준)
 - 3차산업 74.3% / 2차산업 24.5% / 1차산업 1.2%順
- 총 교역량 : 1조 1,718억불(일본무역진흥회)
 - 수출 5,735억불 / 수입 5,983억불

4. 우리나라와의 관계 (1965년 수교)

- 2015년 교역 : 대일수출액 256.0억불 / 대일수입액 458.5억불
- 2015년 투자 : 대일투자액 18.1억불 / 대한투자액 16.7억불
- 2015년 인적교류 : 방한일본인 183.8만명 / 방일한국인 400.2만명
- 2015년말 : 재일한국인 45만 8천명 / 재일조선인 3만 4천명

Ⅳ. 주요연수내용

1. 공식방문 : 모쿠렌 보육원

가. 방문목적

- 선진 보육정책 조사 및 보육환경·시설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지역 보육사업의 질적 향상 방안 모색

나. 주요내용

- 연수단이 방문한 보육원은 교육시설과 보육시설이 결합된 형태의 어린이집이었다. 일본에서는 직장에 다니는 부모가 아이들을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을 보육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관리하는 보육원은 사립에 비해 보육사의 수, 시설의 넓이, 음식 관리 등이 더 철저해서 부모들에게 인기가 높다. 따라서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만 입소할 수 있다고 한다.
-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들이 이곳에 있으며, 일반적으로 부모 모두가 직장에 다녀야만 아이가 보육원에 입소할 수 있다. 건강이 나빠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입소에 도움이 된다. 보육비는 각 가정의 수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무료 혜택도 있다.
- 일본의 보육원은 독립된 건물에 운동장이 있는 작은 학교로 볼 수 있는 시설이었다. 운동장에는 놀이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어 아이들은 자유롭게 뛰어 놀 수 있다. 건물 옆에는 시에서 관할하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쉼터 역할로 인조잔디가 깔려 있었다. 텃밭 등 직접 손으로 수확할 수 있는 체험 공간도 있어, 협소한 공간 내에 알차게 구성해 놓은 모습이었다.
- 보육원에는 원장, 교사, 급식담당, 간호사 등이 있다. 이들은 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며, 급식실은 위생문제로 직접 들어가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생에 철저한 모습이었다. 영양사가 식단을 짜면 거기에 맞추어 조리되며, 알레르기 있는 학생들의 경우 따로 맞춰서 준비한다고 한다.



<모쿠렌 보육원 방문 현장>

○ 질의응답

<질문> 보육원과 유치원의 차이는?

<답변> 일본에는 2가지 방식의 보육시설이 있는데 보육원과 유치원이다. 보육원은 0세부터, 유치원은 3~4세부터 들어갈 수 있다. 유치원에서는 주로 공부 중심의 교육으로 초등학교 입학에 위한 준비 기능이 강하고, 보육원은 놀이 중심 교육을 하고 있다.

<질문> 보육원 입소 기준은?

<답변> 보육원의 경우 부부가 맞벌이여야 들어올 수 있다. 또는 부모가 불편해서 다른 시설에 보호를 받고 있다는 조건 하에서 들어올 수 있다.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 유무에 관계없이 들어올 수 있다.

<질문> 원생 수는?

<답변> 연령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보통 유치원생은 30명 정도이며, 0세는 3명이다. 나이에 의해 반이 구성되고 각반에 담당 교사가 있다. 아이들과 교사의 비율은 약 5:1이다.

<질문> 교육비는 어떻게 책정되는지?

<답변> 시에서 책정한다. 각 가정별 소득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며, 보육원 자체에서는 권한이 없다.

<질문>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답변> 영세민 같은 경우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차에 따라서 유치원은 문무과학성에서, 보육원은 후생노동성에서 관할하여 별도 관리한다.

2. 공식방문 : 도쿄 지진방재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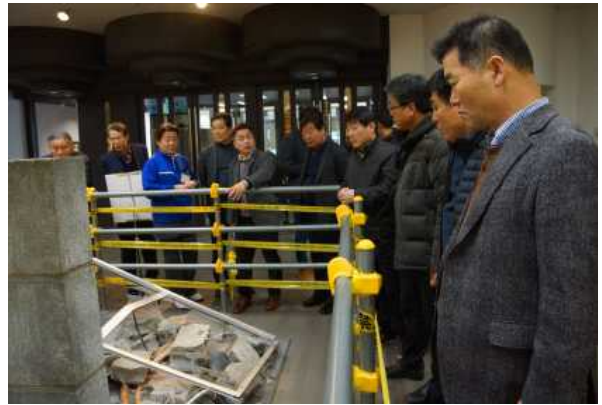
가. 방문목적

- 철저한 대책과 안전 의식, 방재의 생활화를 통해 지진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 벤치마킹

나. 주요내용

- 방재센터가 운영하는 체험시설에서는 지진 발생 후 72시간 동안의 생존 능력을 기르기 위한 체험학습 투어를 실시하고 있다. 지진 발생부터 피난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음향, 조명, 영상 등을 사용하여 리얼하게 재현하고 있다. 이같이 지진을 체험하고 관련 지식을 몸에 익힐 수 있는 시설은 일본 전국에 3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 프로그램은 우선 일본의 3대 대지진인 관동대지진, 한신대지진, 동일본

대지진에 관한 영상 관람 후 실습에 들어간다. 초등학교의 경우 비교적 진도가 약한 체험을 하고, 성인의 경우 진도 7을 체험하게 된다. 이곳의 체험 프로그램은 실습과 시뮬레이션 등으로 구성돼 화재가 났을 때 왜 낮은 자세로 대피해야 하는지 암기할 필요가 없다. 직접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몸이 따라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다.



<도쿄 지진방재센터 방문 현장>

○ 현대의 재난은 지진 이외 화재도 많다. 일본의 가장 많은 화재 원인은

방화기 때문에 본인이 예방 및 주의를 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 훈련이 필요하다.

- 특히 가정에서 쉬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가정 하에 이루어지는 가상 체험을 비롯하여 집에서의 탈출, 재해를 입은 도시 등이 사실적으로 재현되어 있어 실제 상황 하에서의 화재 진압 훈련과 응급처치 교육 등을 실시해 지진의 위험성과 대처 방안을 가르치고 있다.

3. 도쿄 도의회

가. 방문목적

- 타국의 의회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발전방향 모색

나. 주요내용

- 도의회는 주민의 직접 선거에 의해서 선택된 127명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쿄도에는 42개의 선거구가 있어 각 인구수에 따라 의원의 수가 정해지는데, 도민 10,000명당 1명의 비율이라고 한다. 이 중 여성의원은 25명 정도이며, 여성 의장이 선출된 이후로 방청객 수가 많이 늘었다고 한다. 의원 입후보 가능 나이는 25세이며, 현재 최연소 의원은 29세라고 한다.
- 연간 예산은 13조엔 정도이며, 회기는 연 4회로 2월, 6월, 9월, 12월에 열리며, 일수로 따지면 2달 정도의 기간이라고 한다. 의원 임기는 4년이며 연봉은 1,700만엔으로 한화 약 1억 7천만원 정도이다.
- 회의장은 낮에는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여 에너지 절약에 힘쓰고 있었으며, 방청석에는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석과 수화화면 전송을 위한 TV가 별도 설치되어 있었다. 내부는 의장석, 의원석, 집행부석, 발언석, 답변석, 서기석, 속기사석, 촬영석, 보좌관석 등으로 구성된다.



<도쿄도의회 방문 현장>

- 도쿄도청은 1991년에 지어진 건물로 지자체 정부 청사 건물인 동시에 랜드마크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어, 수많은 관광객들에게 도시를 알리는 또 다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기도 했다.
- 도청은 모두 3개의 건물로 되어 있으며 1청사, 2청사, 도의회로 이루어진다. 도청 앞에는 도민광장이 구성되어 있으며, 얼마 전 도청 내에 보육원이 설립되어 지역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4. 에노시마 관광 지구

가. 방문목적

- 다양한 시설의 연계 및 관리 현황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자료 수집

나. 주요내용

- 도쿄 근교에 위치하여 휴양지로 인기가 많은 곳으로 600미터의 다리로 육지와 연결된 섬이다. 에노시마 신사, 수족관, 식물원과 함께 일본 제1의 요트항을 지니고 있어 일본과는 또 다른 이국적인 전경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 에노시마 1day 패스를 운영하고 있어 1일권 하나로 에스컬레이터, 식물원, 전망등대, 에노시마 동굴을 모두 입장할 수 있다. 에노시마 패스 티켓을 제시하면 에노시마 신사, 수족관, 아일랜드 스파, 음식점, 기념품 가게 등에서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 놓았다.
- ‘사무엘 코킹’은 섬 정상에 있는 식물원으로, 전망 등대와 함께 새롭게 단장한 정원이다. 메이지 시대 때의 영국인 무역상이 1883년에 일본과 서양의 건축미를 자연스럽게 조화시켜 만든 곳으로, 일본 최대 온실 구조물이 보존되어 있다. 정원의 끝에는 전망등대가 있어 다양한 이벤트가 열리며, 특히 매년 겨울에 열리는 일루미네이션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다고 한다.



<에노시마 지역 방문 현장>

5.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거리

가. 방문목적

- 수변 정비 및 거리의 옥외광고물 정비 현황 벤치마킹

나. 주요내용

- 도톤보리는 운하가 지나가는 오사카 시내의 평범한 휴식공간으로 남았을 장소가 상점들의 특색있는 간판 하나하나가 모여 관광 상품으로 연결된 경우다. 오사카의 전통성을 간직하며 현대적인 감각을 누릴 수 있는 쇼펍거리로 왕게, 북어, 북치는 인형, 육상선수 등 재미있고 참신한 아이디어의 간판이 늘어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 이러한 간판들은 오사카의 대표적인 관광 상품이며,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특화정책을 통해 지역특색을 살려나가고 있었다. 잘 정비된 간판들과는 달리 조금은 제각각인 도톤보리의 간판들이 관광객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보며, 좀 더 다양한 사례들을 조사하고 우리 지역 간판정비사업에 벤치마킹하여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또한 과거의 도톤보리 수변부는 변화가의 뒷면이었다. 오사카시는 운하가 가지는 잠재력에 주목하여 장기적인 수변부 정비계획을 수립했다. 수공간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수변정비를 실시하여 물의 도시 오사카를 상징하는 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다.



<신사이바시, 도톤보리 거리 방문 현장>

6. 산넨자카, 니넨자카

가. 방문목적

- 교토의 도시 재생사업을 통한 관광 및 지역 활성화 방안 벤치마킹

나. 주요내용

- 산넨자카 지구는 1976년 시 조례에 의해 전통가옥 보존지구로 지정된 곳이다. 교토 동부의 산 기슭에 위치하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청수사, 야사카신사 등 교토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들로 둘러싸여 있다. 사찰을 둘러싼 산책로를 따라 전통 건축 형식의 찻집, 전통공예품, 특산물 가게, 주택 등이 늘어서 교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서울의 인사동, 전주 한옥마을과 비슷한 느낌이지만 산넨자카의 특이한 점은 역사적인 건축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외관의 의장과 양식을 계승하면서 개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산넨자카 아래쪽의 니넨자카도 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니넨자카 역시 큰 차이가 없는 길들이다.
- 교토시만의 철학을 바탕으로 역사라는 강점을 살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진행한다면 관광 뿐 아니라 지역 활성화로 연결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이 될 것이다.



<산넨자카, 니넨자카 방문 현장>

7. 도요타 시티

가. 방문목적

- 체험형 테마파크 사례 및 시설 현황 벤치마킹

나. 주요내용

- 도요타 시티는 도요타 자동차의 쇼룸이다. 최신형 자동차를 볼 수 있는 도요타시티 쇼 케이스, 자동차와 디자인의 관계에 대한 전시와 미래형 자동차를 시승해 볼 수 있는 도요타 유니버설 디자인 쇼 케이스,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쳤던 유명한 명차들을 볼 수 있는 히스토리 가렛지의 3가지 전시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 특히 최신 모델을 타고 주행코스를 돌아보는 체험, 전자동으로 작동되는 초미니 전기자동차를 타볼 수 있는 등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체험형 전시물이 많아 자동차에 특별히 흥미가 없어도 재미있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최근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을 넘어 관람객이 직접 느끼고 만져보는 등의 체험형 전시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도요타 전시관의 경우 상업용 공간이었지만 해당 전시 형태를 의성군 내 박물관, 전시관 등에 적용하여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해보도록 한다면 매우 효과적인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요타 시티 방문 현장>

V. 정책 시사점 및 총평

가. 정책 시사점

○ 지진, 태풍 등 재난 교육 시스템 강화

- 일본의 재난대응훈련은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행동요령을 어릴 때부터 습관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국민들은 미취학 아동부터 성인들까지 전국에 위치한 200여개 방재센터를 통해 의무적으로 재난대응훈련을 받고 있다.
- 안전 교육은 단순 시청각 교육이나 일회성 체험에 그쳐서는 안된다. 재난 대응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를 고려할 때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실습 교육,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교육이 돼야 할 것이다. 특히, 재난안전관련 교육은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부터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체득화 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 져야 할 것이다.
-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도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을 보면 결코 지진 안전지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재난 대응 선진국인 일본의 사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실습 교육,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아우를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는 지진에 대비한 주민대피 매뉴얼 작성 및 보완, 지진 대피소 지정 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 교토의 지역브랜드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역사 문화 도시’ 라는 지역 브랜드를 통해 관광 산업과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낸 교토시의 사례는 정부, 지자체, 주민들의 협력이 이루어낸 결과다. 교토시에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문화재는 사원, 신사, 전통정원 등 모두 17개이다. 이를 기반으로 한 전통산업과 타 산업분야 간의 연계를 강화시키는 지방정부의 노력과 주민들의 참여가 교토시의 전통산업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 우리 군에서도 지역의 문화재나 또는 전통산업을 활용하여 관광객이

찾아오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리 군의 특산물인 마늘을 관광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 할 때이다.

○ 보육시설 및 보육프로그램 개선

- 일본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의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었다. 경제, 사회, 가족 문화를 배경으로 아동보육정책이 펼쳐진다는 점을 볼 때, 우리는 일본의 가족 및 보육정책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우리를 위한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우리나라에서는 보육을 단순한 보호라는 차원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기 때문에 적합한 보육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의 단순 보호 위주로 짜여 있는 보육 프로그램의 내용을 개선하여 아동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는 가운데 보호와 교육효과를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나. 총평

- 이번 일본 연수는 타국의 의회제도 비교분석을 위한 도의회를 방문하는 등 복지정책 현장 및 선진시설을 둘러보며 국제적 안목을 함양하고, 선진 정책을 우리군 의정에 반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할 수 있다.
- 방재교육의 경우, 가정이나 학교에서의 방재교육도 중요하지만, 일본과 같이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가서 직접 체험하고 대응방법을 배울 수 있는 안전 체험 기관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 일본은 전통과 고유한 관광자원을 상품화하여 관광산업의 활성화하고 있었다. 우리군의회에서도 특산품인 의성마늘을 중심으로 관광산업과 연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을 중점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야 할 것이다.